

본교생 56% 하루 2시간도 공부 안해

교육기획단 설문결과 ... 학습량 증대위한 대책 필요

우리학교 학생들의 56.57%가 하루 2시간 미만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강화 정책 지표를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로 교육기획단(단장=고진호·교육학)이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학습량 및 학습형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학생의 9.2%에 해당하는 1,100명의 학생이 응답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관련기사 4면

이번에 실시된 '학습량 및 학습형태 온라인 설문조사'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업 외에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12.34%로 나타났고, 수업 외에 하루 30분이상 2시간 미만 학습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4.23%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수업 외에 하루 4시간 이상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7.6%로 나타났다.

학년 별로 비교해 보면 수업 외에 2시간미만을 학습하는 비율이

1학년 76.9%, 4학년 35.9%로 저학년일수록 학습량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차이를 알아보면, 수업 외에 2시간미만을 학습하는 비율이 여학생 67%, 남학생 49%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량이 적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학습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전공이라고 답한 학생이 46.3%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라고 답한 학생이 35.9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한 학년별 응답을 살펴보면, 1학년 49.77%, 4학년 45.19%로 외국어 학습비중이 높았고 2학년 60.89%, 3학년 58.52%로 전공 학습비중이 높았다. 이는 고학년은 취업준비, 전문자격취득을 위한 학습에 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수업 학습내용별 학습량 투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해 보면, 시험준비에 대한 학습량이 가장 높게 나왔고 발표 및 토론준비, 과제활동이 뒤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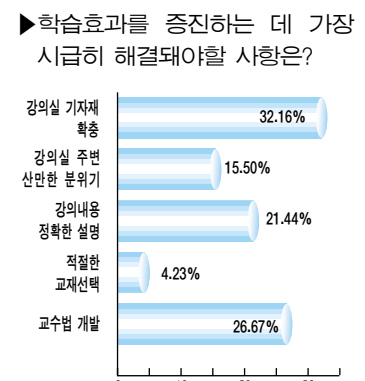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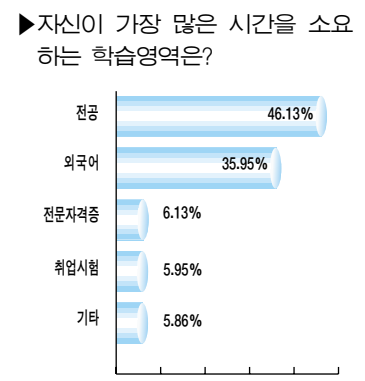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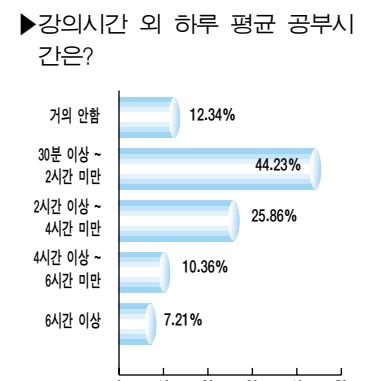
었으며 예습과 복습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양수업 학습 내용별 학습량 투입 결과도 똑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모든 학습내용에서 교양보다 전공의 학습량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강의진행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강의 51.67%, 프로젝트수행 23.90%, 발표 13.35%, 토론 11.0%로 응답했다.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교수법 개발 26.67%, 강의내용의 정확한 설명 21.44%로 교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강의실 및 기자재 확충에 대한 대답도 32.16%로 높게 기록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기획단의 김윤길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학습량의 증대와 학습방법의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서울-경주 정보서비스통합 난항

서로 의견차 좁히지 못해 ... 서울캠 ID 통합은 11월 추진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과)에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던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간의 정보서비스 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일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서울캠 정보관리실장과 경주캠 교수, 직원들간 논의 결과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없었던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정보관리실장은 "통합은 서로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한쪽만의 추진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오는 11월부터 서

울캠에서는 학사와 관련한 드림스, 핸디오피스, 홈페이지의 전체 ID를 하나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내에서도 이번 양 캠퍼스 간의 정보서비스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서의 처장들은 이러한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일부 교수들 역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양 캠퍼스의 정보서비스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논

의하기 위해 서울캠의 각 부서 처장과 중앙도서관장, 정보관리실장, 경주캠의 김의장 교수와 정보관리실장 등을 위원으로 정보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브리핑만 진행됐을 뿐, 올해 8월까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도서관 최인숙 관장은 "이번 통합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학사, 도서관 서버 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정보관리실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정보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정보화추진위원회와의 심층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서비스 관련 분야의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을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길 잃은 벼더미 ... 지난 11월 대학로에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WTO/DDA반대' 행사가 열렸다. 눈이 아니라 시멘트 벽들 위에 쌓여진 벼더미는 벼랑끝에 몰린 우리농업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기훈 사진부 객원기자 tal@dongguk.edu

2학기 수시모집 평균 17.45대1

지난해보다 상승 ... 연극영상학부 가장 높아

2005학년도 2학기 수시 모집 접수결과 평균 경쟁률이 17.45대1로 지난해 10.52대1보다 상승했다.

이중 연극영상학부(연극-실기)가 67.01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수학교육 53.40대1, 국어교육 50.60대1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 김종진 실장은 "사범대 경쟁률 상승이 전체적인 경쟁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서울·경기 지역 인문고사 합격률 2위로 평가된 사범대의 경쟁력이 인정받

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총 886명을 선발하며 △일반우수자 △불교계 추천 △외국어 토폴·토의 우수자 △실업계 특별전형 △장기취업자 등의 전형으로 모집했다.

일반 우수자 전형 논술고사는 오는 18일 진행되며 연극영상학부 실기 고사는 18일부터 사흘간 실시된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11일이며 실기고사와 면접고사를 치른 뒤 최종 합격자는 11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야구부, 인하대와 8강진출 놓고 한판

축구부는 다음달 9일 단국대와 첫경기

우리학교 야구부(감독=김학용)가 '2004년도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에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에 동대문야구장에서 인하대와 경기를 가진다.

야구부는 이번 대회에서 조 2위로 12팀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으며 인하대를 이길 경우 경희대와 14일 8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야구부 김석기 코치는 "전력을 다해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구부(감독=김용해)는 오는 10월 8일부터 7일간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축구부는 지난 6월 열린 서울시 대회에서 우승해 서울시 대표권을 차지했으며 오는 10월 9일 오후 1시 20분에 충청남도 대표자격으로 출전한 단국대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서울 △인천 △부산 등 각 지역 대표로 나온 총 16개 팀과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충북대학교 운동장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직원인사발령

본교가 직원인사를 단행했다. 전보인사는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기획팀장 겸 건설팀장=김영진 △총무처 총무팀장=김성근 △정보관리실 정보지원관리팀장=김재진 △대학원 교학부 교학과장=박승중 △법인사무처 사업과장=김규환 △기획인사처 예산팀=허부강 △경영대학원 교학부=유제동 △노동조합=변민우(이상 9월 2일자)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이강현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이천종(이상 9월 6일자이다.

백상예술제전 20일부터 4일간

이번주 농구·장기자랑 예선 진행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재동·불교4, 이하 비대위)가 '東國新飛(동국신비)'를 모토로 오는 20일부터 4일간 백상예술제전을 개최한다.

올해 10월에 단국대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난해보다 일찍 진행하게 된 이번 제전의 모토 '東國新飛'는 동국대의 새로운 날개 짓을 통해 학내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의미다.

이번 주에 열리는 행사는 △농구

예선=내일(14일) 1시부터 19개팀 참가, 만해광장 △노래장기자랑예선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동 비대위장은 "매년 진행되던 축구대회는 운동장 사정으로 다음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1일 열릴 예정인 마라톤 대회는 대회시작 전까지 www.dglove.net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주에는 농구와 줄다리기 결승, 마라톤대회 등 이번 예술제전의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행기금 060-700-0119



밥과 깨달음의 길, 발수공양

학내 음식쓰레기 한 달 40여 톤
상록원, 동국관, 아리수, 그릴...
그곳도 우리의 작은 깨달음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줄여나갑시다.

발수공양: 평상시 승려들이 식사하는 것을 이르는 말, 먹을 것 한 톨도 버리지 않아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먹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식사법이다.

역교과, 신임교수 수업거부

학생회, 해당 교수 강의능력 우려

학교, 강의 능력 수강 후 판단할 문제

지난 역사교육과(이하 역교과) 교수임용논란에 이어 학생회가 해당교수 수업거부운동을 전개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역교과 학생회(회장=김의창·역교과3)는 이번 교수임용의 전면백지화를 주장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강거부운동을 벌인 것이다. 또한 해당교수를 수강 신청했던 국어교육과 학생들과 수강거부운동을 연대했다.

이와 관련해 역교과 김의창 학생회장은 "한국사를 전공한 교수가 동양사과목을 가르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돼 거부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는 해당교수의 강좌

가 폐강기준인원임에도 폐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교수가 맡았던 3강좌 중에서 2강좌가 다른학과 학생 2명만이 수업을 듣고 있고 다른 한강좌 역시 역교과 학생 한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다른 학과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학사내규에 의하면 '미달인원 경우에 폐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반드시 폐강하지는 않아도 된다"며 "담당교수가 임용된 후 처음 맡은 강의란 점을 고려해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측은 교수의 강의 능력은 직접 수강해본 후 판단할 문제

이지 수강하기 전에 미리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신임교수 수업을 듣는 역교과의 한 학생은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이 됐지만 듣고 판단하려 했다"며 "현재 강의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교수임용사건으로 서로의 입장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은 학생들의 수강거부운동으로까지 확산됐다. 이 문제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측과 역교과 교수, 학생회간의 상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논의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기자 hjs0228@dongguk.edu



카메라, 나 그리고 영화 ...

우리학교 영화영상학과 BK21 '대안영화이론 개발연구 인력 양성팀'이 주최하는 해외학초청특강이 지난 9일 학술문화관 K동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은 프랑스 뉴웨이브의 한 흐름을 개척한 여성감독 비베트 멘골트가 '카메라를 흔친 여성 Camera Eye/I'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민희 기자 hjs0228@dongguk.edu

학대회, 정족수 미달로 안건 미뤄져

이번주 사범대·야총·원총 학생대표자회의 열려

이번학기 첫 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 9일 학림관에서 열렸다. 안건으로는 △방중사업 보고 △총·부총학생회장 제직 문제 보고 △비대위 구성 보고 등과 △교비지원·시설사용제약·학생회 대표성 불인정 등의 학생자치권탄압에 대한 2학기 학원자주화운동 계획 △백상예술회전 사업 계획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시작 할 때에는 정족수가 넘어 성사된 대표자회의가 회의 도중 몇 명이 빠지게 됨에 따라 정족수 41명중 약 5명 미달로 △교비지원 및 시설사용 제약 등 학생회 자치권 탄압 △교비환수에 따른 등록금 동결 △공간소유권 보장 등 강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논의안건

에 대한 설명 부족과 쟁점을 부각하지 못한 것 등 회의진행 미숙이 시간을 더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학생대표자회의 일정이 비상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서 2주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김운권·정통4)는 오는 18일 동국관(L301)에서 야간강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안건은 야간강좌폐지 후 현 야간강좌 학생들의 복지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마련 등을 위한 2학기 사업논의를 진행하며 15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된다.

또한 사범대 학생회(회장=김용환·국교4)는 내일(14일) 사범대 학생대표자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 인준 △방중활동 보고 △2학기 사업

계획 보고 △학생자치권 탄압에 대한 성명서 논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가 오는 17일 오후 5시 30분 학술문화관 S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실시한다.

이번학기 처음 실시하는 이번 회의의 안건은 △회칙개정 △방중활동 보고 △집행부 인준 △공간·연구등록제 등 기초사업에 대한 논의 △선관위 겸 감사위원 선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신정민 총학생회장은 "기존 대학원 회칙 중에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어 개정하려고 한다" "집행부 인준은 2학기에 9명이 바뀌어 인준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기자 mh706@dongguk.edu

회전무대

공사와 수업사이

○...지난 주 동국관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데.

이유인즉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구도서관 부대공사가 진행돼 일부 강의는 심각한 소음으로 강의실을 옮기기도 했다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의 강의 시간이 적은 시간대를 공사 시간으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 최대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지는 않겠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공사와 강의시간 무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그림의 물

○...중앙도서관 1층 휴게실 정수기가 새로 교체되면서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식수대에 컵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정수기를 바라만 볼 뿐 물을 마실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중앙도서관 정수기 교체, 목표는 목마름 가중시키기(!)"

물렸을 뿐인데

○...지난 화요일 불교대 학부생들은 모두가 '맹맹이 학생'이 돼버렸다는데.

이유인즉 학부학생회장을 선출하려는 목적의 학부학생총회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지않아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것이라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고지와 회의의 의미를 일러 참석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학생들 권리, 맹맹이와 함께 사라지다(!)"

물가책정 기준

○...우리학교 사물함은 지역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데.

알아보니 대다수 단과대가 이를 교학과에서 관리하는 반면 한 단과대는 학생회가 관리함에 따라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큰돈은 아니지만 타 단과대들과 같은 물건인 만큼 관리주체를 잘 타협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사물함 비 줄었다고 좋아했더니 실상은 다른 곳에 있었다(!)"

1백주년 타임캡슐 소장품 공모

오는 20일까지 접수 ... 개교 기념일에 설치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본부장=선상규)가 '건학100주년기념 타임캡슐'에 소장할 기념품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방법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http://www.dgu.edu)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5개의 물품을 추천 할 수 있다. 공모자 중 2명에게는 오는 24일 추첨을 통해 삼천리 21단 자천거를 시상한다. 공모대상은 학생, 교직원, 동문 등 전 동국인이 가능하다. 타임캡슐은 건학 1백주년이 되

는 해인 2006년 5월 8일 정오에 소장품 100개를 진공상태의 용기에 넣어 지하 또는 지상에 매설하고 건학 2백주년이 되는 2106년 5월 8일에 개봉할 예정이다. 설치할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학100주년 기념사업회 박현식 과장은 "미래의 동국인들이 타임캡슐을 개봉해 당시 대학문화와 선인들의 지혜와 삶을 엿볼 수 있는 소장품이 공모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해외인턴쉽 특강

오늘 오후 5시 세미나실

한국산업공단이 2004년도 하반기 해외인턴쉽에 대한 특강을 오늘(13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해외인턴쉽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인턴쉽의 취지와 전망'에 대한 것이다.

또한 △황순재(예뮬루션 국제교류센터 본부장) △박양근(경영학과 강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 부장)씨가 강의를 진행한다.

장소는 학술문화관 2층에 위치한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5시에 열린다.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 워크숍 진행

소재개발 고부가가치 실현 ... 30여개 기업 참가예정

지난 10일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 워크숍'이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의 최근 개발 동향'을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 소개를 시작했다.

또한 외부 초청자들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자유토론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는 본교 김병식(생명화학)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공과대 교수들이 사업자원에서 실시한 '2004년

도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연구 과제에 선정되어 설립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IT, NT, ET 산업의 기초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콜로이드 소재 개발 및 생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부터 5년간 45억을 지급받게 된다.

김병식 교수는 센터의 목표에 관해 "고가장비 구축·활용, 기술교육 및 인력양성, 국내외 기술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 제품의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화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콜로이드와 계면화학 △콜로이드 회합구조의 응용 △콜로이드와 화장품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발제자로는 김종득 카이스트 교수, 인경희 중앙대 교수, 장이섭 태평양 기술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한편 이번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 사업에는 네오팜, 대광화학공업(주), 대영화학(주) 등 30여개의 기업이 참가한다.

취업특강 14일 2시 중강당

'취업 그 새로운 시작' 주제

'취업 그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하는 2004년 하반기 취업특강이 내일(14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특강에는 한국산업카운슬러 협회 회원인 김지성 씨가 참석해 △이력서의 구성방법 및 표현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우수 입사 지원서 샘플을 통한 성공 사례 분

석 등을 강연하며 강의 후에는 학생들의 질의와 강연자의 응답 시간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 김명숙 계장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학 보궐선거 무산

36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지난 8일까지였으며, 출마자가 없어 총학생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총대의원회 김동우(중문4) 비대위장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과 11월 중순에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9/13)	소고기버섯찌개 (18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스파게티 (2000)	참치김치찌개 (1800) 돈육파랑김치 (2000) 갈비경단 (1800)	된장찌개 (3200) 뚝배기불고기 (3800) 닭갈비 (3500)
화 (9/14)	닭곰탕 (1800) 오징어떡볶이 (2000) 나물비빔밥 (1800)	갈비탕 (2000) 계란햄볶음밥 (1800) 간짜국 (2000)	된장찌개 (3200) 살림탕 (3500) 고등어우조림 (3500)
수 (9/15)	비지리순두부찌개 (1800) 참치큰볶음밥 (1800) 돈육양파김치 (2000)	쇠고기국밥 (1800) 오징어불고기 (2000) 비빔밥 (1800)	된장찌개 (3200) 튀김우동 (3500) 떡갈비찜 (3800)
목 (9/16)	양지탕 (1800) 닭조림 (2000) 비빔만두 (1800)	꼬치이묵우동 (1800) 닭도리탕 (2000) 김치볶음밥 (1800)	된장찌개 (3200) 영양술밥 (3500) 오징어볶음 (3500)
금 (9/17)	햄숙이찌개 (1800) 돈갈비찜 (2000) 카레볶음밥 (1800)	감자탕 (1800) 잡채자장밥 (2000) 버섯불고기 (2000)	된장찌개 (3200) 더덕구이 (3800) 산채비빔밥 (3500)

금주의 추천메뉴

감자탕 (상록원 금요일 조식)

감자탕의 역사는 삼국시대 때 전라도 지방에서 돼지뼈를 우려내어 뼈가 약한 환자나 노약자에게 먹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주재료인 돼지등뼈에는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B1이 풍부하여 골다공증과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이다.

동악게시판

HAM
아마추어 무선통신동아리
2학기 신입생 모집
원홍관 7층
016-9553-5364

사학과 106차 추계답사
동학농민운동 관련 충남, 전북
9월 15일~9월 17일
회비: 7만원
연락: 03이승호(019-9303-7139)

지연과학연구회
학관 3층 목요일 오후 6시
살맛나는 세상 신명나는 동아리
학생회관 5층
풍류, 탈춤, 마당극 동아리

동국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경력자 환영
매주 월, 목 6시 학림관 4층
회장 류성은 019-381-5663

MASIC
동국대 미술동아리
신인생 모집
011-9891-9515

SSID
뜨거운 열정이 있는 곳

월, 금 정기모임
학림관 503호 6시

취업

(주)약진통상
모집부서: 중국관련업무(신입)
응시자격: 전공불문
문의: 02)405-1311
모집기한: 9월 17일까지

경보전기(주)
모집부서: 연구개발직
조건: 전기공학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
모집기한: 10월 9일까지
문의: 02)465-1138

그린서비스
모집부서: 관리
조건: 여성
모집기한: 9월 17일까지
문의: 031)715-3426

동우화인켄
모집부서: 관리, 영업, 영업관리,
연구
조건: 반도체용 재료, 생산관련업체
경력자 및 각종 자격증 소지자 우대

모집기한: 10월 6일까지
문의: 02)6250-1119

아르바이트

LG 텔레콤
월급: 1백만원
문의: 010-5515-3235

남산휴게소
조건: 남자
시급: 4천5백원
모집기한: 9월 16일까지
문의: 02)753-6445

삼성제일병원
시급: 3천원
근무시간: 평일-오전 8시~오후 5시
주말-오전 8시~오후 12시
모집기한: 9월 17일
문의: 02)2000-7732

이비스학원
월급: 80만원
근무기간: 월, 수, 금 또는
월, 수, 목
근무시간: 오후 4시~오후 8시
모집기한: 9월 31일까지
문의: 018-270-3147

이주의 본교역사

동국학원, 데이콤과 산학협동

1995년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본교 전자계산원과 데이콤과의 산학협력협정 조인식이 이사장실에서 있었다.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의하여 정보화시대를 맞아 산학협력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화 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으로 데이콤은 정보통신교육을 전달할 산학협력교육센터를 전자계산원에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교육지원을 합의했다.

내용은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최첨단 실습기자재 등 제반시설 지원 △정보통신 교육에 필요한 정보통신교육실시 △본 협약을 기반으로 동국학원 및 사철의 정보화 적극추진 △데이콤 교육생에게 신규실습시설 일부개방이다.

본교와의 산학협력협정으로 종단사찰의 정보화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개교 90주년 사업본부 명칭변경

1993년 9월 17일 '개교 90주년 기념사업본부'가 동국발전협의회회의의 건의로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로 변경됐다. 이는 90주년을 바라본 단기간의 사업보다는 1백주년이라는 장기적 안목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는 동문들에게 안내홍보물을 발송하고 각 직장·지역 등 단위조직별 동창회에 직접방문 하는 등 1백주년 사업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농민들의 희생 댓가가 대책없는 쌀개방인가”

농민대회 전국 곳곳에서 열려 ... 국제 참가단과 함께 쌀개방 반대

“열사정신 계승하여 식량주권 수호하자, 전 국민이 하나 되어 WTO 박살내자!”

지난 1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약 1,500여명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오후 3시 '9·11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WTO/DDA 반대 국민대회'를 시작할 즈음만해도 한산했던 공원은 점점 굽어져 가는 빛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드는 집회참가자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날 행사는 지금까지의 농민대회는 달랐다. 농민대회가 열릴 때마다 농민들이 전국에서 몇 백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투쟁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는 농민들의 대표, 농민들과 함께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특히 헨리 사가기(인도네시아 농민연대 대표) '비아 캄페시나' 사무총장, 프랑스의 농민활동가 조세 보베 등 국제 참가단 또한 함께 해 쌀 시장 개방에 압력을 행사하는 조국적 자본에 대해 국제 농민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행사는 △이경해열사 추모제 △국민대회 △행진 및 정지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해열사 추모제 사회를 맡은 정기환 전국농민연대 집

행위원장은 “WTO가 농민을 죽인다, WTO에서 농업을 제외하라” 했던 이경해 열사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 생명이 달려있는 식량산업인 농업은 무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모시 낭송을 맡은 최민희 민주 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에 묵묵히 따라온 농민들이 받아야 하는 대가가 대책없는 쌀 시장 개방이나”며 노무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2부 국민대회 행사에서는 정광훈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비롯해 많은 인사들의 정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쌀 개방 관련 협상이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

도 정부당국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 할 뿐 국민과 농민들에게 협상의 목표와 경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서겠다”며 앞으로의 쌀 시장 개방 저지 투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낭독된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불평등 교역을 강제하여 약소국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WTO, DDA에 반대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가이익 모두에 합당한 일임을 주장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문창과 문인초청 특별 강연회 내일(14일) 학술문화관서 진행

예술대 문예창작학과가 주최하는 '문인초청 특별강연회'가 오는 14일 오후 3시 학술문화관 K동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강에는 소설가 김원일씨가 참석해 기성 문인의 문학수업 과정과 실제 창작 경험 및 직업으로서의 작가활동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며 문예창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강연은 △학과장 인사말 및 문인소개 △문인 강연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일씨는 1967년 등단해 '마당깊은 집' '미망' '도요새에 관한 명상' 등의 작품을 썼다.

개강맞이 법회 정각원서

오는 21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개강맞이 고승초청법회가 열린다. 이번 법회는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이법산 정각원장이 약 1시간 동안 강연하며 학내구성원과 일반인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저서번역 연구비 접수

평가순위 · 기여도 고려 선정 연구처(처장=유석천 · 경영학)가 저서번역연구비 접수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

지원을 원하는 교수들은 단과대학 교학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속대학장 추천을 받아 연구개발비에 제출하면 된다.

저서번역연구비는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총 12편이 선정돼 40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연구개발비는 기본적 요건 심사를 통과한 과제들에 대한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선정은 평가순위와 기여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동원 학술상 논문 접수

총 20편 선정 11월 발표 대학원 교학과에서 동원학술상 논문을 오는 10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응모자격은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석사=5학기 이내, 박사=10학기 이내) 당해학기 연구등록을 필한 자이며 순수창작논문을 심사대상으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각 부문별 총 20편을 선정한다.

심사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이며 결과는 11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논문은 내년 1월 발간될 학술상 논집에 실리게 된다.

동약국 잃어버린 공간



“우리학교에도 예쁘고 깔끔한 야외카페가 생겼네!” “혜화관 벤치가 없어졌는데 이제 어디서 모이죠?”

개강 후 혜화관 벤치를 찾은 학생들이 새로 생긴 커피전문점들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이를 환영하는 사람과 혜화관 벤치를 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알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엇갈리는 것이다.

학생들이 걱정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혜화관 벤치 전체가 야외 카페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쪽 문 위의 간판과 홍보 플래카드, 테이블 위 음료메뉴판은 이곳이 커피전문점의 엄연한 상업공간임을 보여준다.

생협은 혜화관벤치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복지증진과 수익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커피전문점을 유치했다. 약 3.5평의 커피 부스 자리만 임대하고 나머지 공간은 커피전문점에서 활용할 수 있되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

용을 제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커피전문점의 유치로 질 좋은 음료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등 한결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 테이블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음료 구매자’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비구매자’들은 커피전문점의 폐쇄성으로 혜화관 벤치 이용이 불편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기존 혜화관 벤치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이용하던 공간이다. 학교와 커피전문점에서는 예전과 같이 벤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적극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이블 위 메뉴판과 벤치 입구의 간판은 비구매자들이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어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천 상임주주의 구성원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앞으로 커피전문점이 진정한 동국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학내구성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잘 다녀왔습니다” ... '2004 동국해외탐방' 결과 보고회가 지난 11일 도서관 AV실에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참가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보낸 자료를 중심으로 탐방활동 결과에 따른 탐방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형법 비디오 강의 15일 부터

기술고시 · 변리사 특강 16일 열려

계산고시학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형법 모의고사 비디오 강의를 실시한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학법관 J406에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J408에서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인원은 선착순으로 45명이 지원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계산고시학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술고시와 변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 오는 16일 5시부터 2시간동안 원흥관 E103에서 진행된다.

기술고시와 변리사에 관심있는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강사는 김용태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관 사무관과 노준태 국제 특허 사무소 변리사이다.

한편 지난달 23일부로 사법고시 반 지도교수가 김태영 법학과 교수로 새롭게 변경됐다.

예술길

최연소 골수 기증자 조혜련(산림자원2)양

“소중한 생명이 희망줄 수 있어 행복해요”



“학생 형편으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없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조혈모세포은행이었어요.”

연약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남을 돕는 일에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학생이 있다. 지난 5월 이릉도, 얼굴도 모르는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를 기증한 조혜련(산림자원2)양. 만19세로 국내 최연소 골수기증자이다.

“수술을 앞두고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생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실感が 더 컸어요.” 그는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몸소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뻐뻐했다고 한다.

가족과 친구들은 수술 후유증을 걱정해 만류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골수를 이식 받고 생명을 이어갈 환자를 생각하면 그는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조혜련 양은 전부터 여러 번 헌혈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우려 했다.

하지만 철분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할 수 없었고 골수이식 신청 과정에서 철분 수치가 낮아 골수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두 달여 간 철분제를 꾸준히 섭취한 후 자신과 골수가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 그 환자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그는 전국에서 이식받으려 하는 환자들은 넘쳐나지만 반면 골수 기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달에 10명이 채 안된다며 자신의 주변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골수이식수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무엇보다 안타까워 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골수는 수술 후 평균적으로 2, 3일 후면 다시 생성된다. 또한 수술 과정 역시 2박3일 정도면 충분하고 수술 후 하루 정도 병원에서 쉬면 별다른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담당 주치의로부터 환자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저와 골수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살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을 위해 평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할 큰 결정을 한 그녀, 그럼에도 건강하다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저 자신한테 좋은 기회가 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녀의 말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끄럽게 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학교법인 이사회 20일 개최

교육부 제출 교비환수계획서 논의 예정

학교법인 제203회 이사회가 오는 20일 오전 11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병원 예산심의 △상임이사 선임 △교수 승진 △정관개정 시행세칙 △포항 병원 장비도입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보완을 요청 받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예정된 교비환수계획서 보완에 관한 논의가 있을 계획이다.

‘즐거운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간담회 실시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재외국민·외국인 학생분들이 느끼는 한국에서의 대학생활과 외국 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학사제도, 공부 환경, 친구나 선후배 관계 등의 문제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 적응에 큰 장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서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재외국민·외국인 학생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여러분의 고민과 요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재외국민·외국인 학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즐거운 만남’의 자리에 초대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만남’ 일정 및 내용

- ◆ 참석대상 : 재외국민·외국인 학생
- ◆ 날 짜 : 2004년 9월 16일 오후 2시
- ◆ 장 소 :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 ◆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
 1. 학교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
 2. 대학 공부에 관해 궁금한 점
 3. 학교시설 이용이나 학사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
 4. 학교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점
 5.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면서 궁금한 점
 6. 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7.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
- ◆ 연락처 : 학생상담센터 전화 2260-3930, 3931
위의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은 개별 전화 또는 방문 하셔도 됩니다.

학생 상담 센터

2004년 2학기 집단상담 안내

고민 해결, 함께 해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 안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 소개

집 단 명(리더)	참가대상	일시
참 만남 집단	내 안에 있는 나와와 잘 만남을 통해 자기 성장을 하고 싶은 동국인	매주 수요일 2-4시
진로 및 직업탐색 집단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혼란스러우며 도저히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진정한 직업을 찾고 싶은 동국인	매주 목요일 3-5시

◆ 리더 : 김혜경 (상담심리전문가) 임진 (상담심리전문가)

◆ 기간 및 횟수

10월 6일~11월 25일까지, 매주 수(2-4시) · 목(3-5시), 각 집단별 8회씩 진행

◆ 접수 및 문의

10월 4일(월)까지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학생 상담 센터

우체국 전자금융 이벤트

- ◎ 인터넷뱅킹 ▶ www.epostbank.go.kr
▶ 폰뱅킹(ARS서비스 또는 상담원 연결)
▶ 전화 : 1588-1900
- ◎ 이용수수료 저렴 ▶ 우체국간 이체 : 무료, 타행이체 : 건당 400원
▶ 온라인환경조금배달서비스 : 건당 2,000원
▶ 인터넷정기예금 이용시 : 고시이율 + 0.3%
- ◎ 서비스 이용시간 ▶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용가능

◆ 새고객 모시기 행운 대잔치 (9.1~9.30)

구 분	품 목	추첨인원
1등	1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2명
2등	50만원 상당 gift카드	4명
3등	25만원 상당 주유상품권	8명
행운상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0명
고객상	사은품	신규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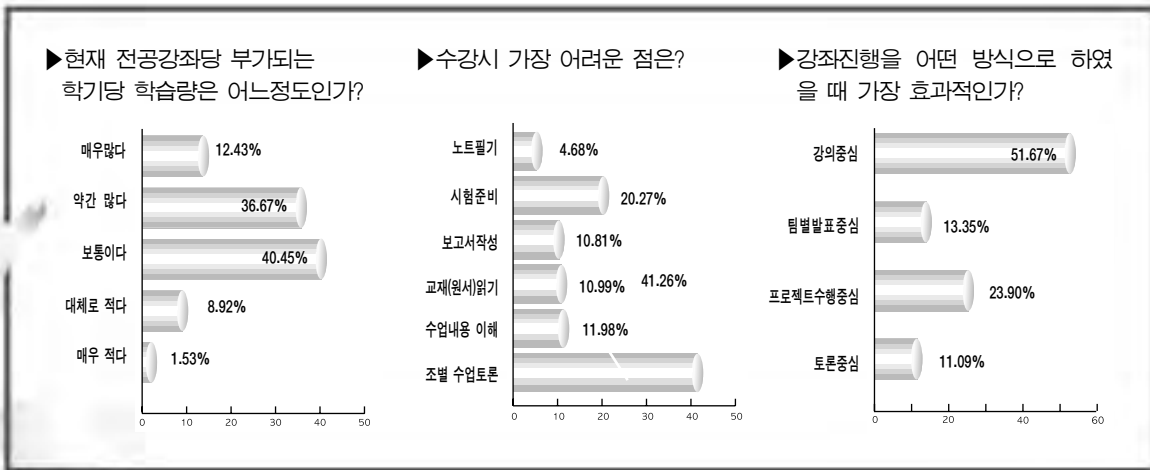
서울 동국대학교 우체국

☎ 2273-6507, 2273-1005

학습량 및 학습형태 설문조사 분석

강제적 학습에서 자발적 학습으로

튼튼한 기초로 비판적사고 형성하는 학습방법 필요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사회의 비판과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 대학의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양적 성장에 주력해온 한국대학의 현실에서 우리 대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제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특성화는 당위적 주장을 넘어서 대학 생존의 절실한 화두가 되었다. 본교는 이러한 인식하에 교육 강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 강화정책은 대학의 총체적인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량을 늘리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내실화도 특성화도 허구의 슬로건일 뿐이다. 양의 축적이 있어야 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 학습량, 대학현실 반영

이번 학습량 및 학습형태 설문조사는 교육 강화의 정책지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학생들의 학습량은 대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응답학생의 56.6%가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 이외에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은 하루 2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학습시간이 10시간도 안된다는 것이며,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15시간)을 합쳐도 25시간 이내로 주당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에 훨씬 못 미친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생들은

일주일에 보통 30시간 이상의 개인적인 학습시간을 투입한다고 한다. 본교의 경우 아이비리그 수준의 응답자는 7.2%에 그쳤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습량의 체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공강좌와 교양강좌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약간 많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보통에 응답한 경우는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약간 많다는 경우도 개인별 학습시간의 분포도를 감안할 때 소극적인 부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수업을 통해서 부과되는 전체적인 학습량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학습투입량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층적으로 접근한 것은 학습내용별 학습량 투입의 정도였다.

이를 위해 전공과 교양을 나누어서 예습과 복습, 리포트작성 등 과제활동, 시험 준비, 발표 및 토론준비에 각각 얼마나 일주일간 학습량을 투입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학습내용별 학습량의 투입 경향은 전공과 교양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교양보다는 전공의 학습량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경우 예습과 복습에 2시간 미만이 64%로서 미미하였고, 교양의 경우 1시간미만에 58.4%가 응답해 자발적인 예습과 복습이 부족한 경향을 농후하게 보이고 있다. 과제활동에 대한 학습량 투입 정도는 예습과 복습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전

공의 경우 3학년(30.97%)과 예술대학(55.56%) 학생들이 5시간이상 과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고, 교양수업에서는 저학년일수록 과제활동 학습량 투입 비중이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전공과 교양 모두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학습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경우 57.3%가 일주일에 평균 5시간 이상을 시험 준비에 투입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교양의 경우는 57.4%가 3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3학년(63.3%)과 사범대학(66.3%) 학생이 전공시험 준비에 5시간 이상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험기간에 대학도서관의 좌석이 부족한 것은 이미 일반화된 현상으로 새로운 것이 없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학습량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하겠다. 발표 및 토론준비는 과제활동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학습투입량은 약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①시험 준비, ②발표 및 토론준비, ③과제활동, ④예습과 복습 순으로 학습량을 투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습량 투입이 성적평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며, 자발적인 것보다는 의무부과나 강제성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교육에 의존한 대학생의 학습

개인학습은 자발성이 중요하지만, 제도교육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대학생의 학습은 제도교육에 의존한 개인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목표는 절대로 강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교육의 현실적인 딜레마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조사한 내용 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주입식 강의를 선호하고, 조별발표수업이나 토론수업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다수 학생들이 일시 위주의 교육에서 수동적으로 주입식 학습에 길들여진 현실을 일정정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조사결과로 볼 때, 학습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성적평가와 많은 학습과제의 부과 등 강제성을 가진 강의계획과 학습지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기는 하지만 과제활동보다는 발표나 토론 수업준비에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는 점으로 미루어 학습방법의 개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좋은 학습방법을 익히는 지름길은 기초학문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학문방법론을 습득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에서 학습량을 강조하는 것은 학문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기 위해서이다.

학습량이 축적되어 기초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제도적 강제성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발적인 학습의 토대로 삼아 질적인 심화를 이룰 수 있다.

김윤길
교육기획단 팀장

백상예술체전 축제지원금 중단 문제

학생회 미신청 ... 학교 미지급

상호 신뢰회복으로 학생피해 최소화해야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백상예술체전이 예년과 다르게 교비지원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축제는 학생회비와 학교의 축제지원금으로 준비됐으나 지난 1학기 대동제에서부터 관행처럼 지급되던 축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재중·별교4, 이하 총학비대위)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백상예술체전의 종목별 상금만을 살펴봐도 지난해보다 확연히 축소된 것이다.

또한 지난 해보다 프로그램을 축소해 축제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대동제도 행사의 단순함과 상업적인 주점이 상당수 있어 문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총학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재정상으로 넉넉하지 못해 기존의 규모만큼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학비대위는 애초부터 이번 백상예술체전에 별도의 지원금 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도 총학에서 축제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와 학생회가 대학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학교와 학생회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원인은 서로간의 신뢰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초 등록금 협의때부터 시작됐다. 협의 기간 중 학교는 △신규 교원 충원 △교육환경 개선 등을 등록금 7% 인상요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학생회는 학교가 공개한 (가)에 · 결산자료에 적립금을 예산안보다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나 있는 등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총학은 "협의 전에 7%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뒤에 이해해달라는 식의 협의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는 결국 본관점거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학교는 "등록금 협의 중 총학과 본관점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히고 "총장과 등록금 협의에 관한 면담약속을 무시하는 등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총학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점거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는 등 감정문제로 번져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학교는 학생회에 대한 교비지원을 중단했고, 학생회는 교육부 감사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점점 서로간의 대화는 중단됐다. 교비환수에 대해서도 학생회가 학교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학생회는 이번 축제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대동제 등의 행사에서 학교 지원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축제에 대한 교비지원 중단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깊은 불신으로 학교와 학생회가 등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뿐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지나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황주상기자
hjs228@dongguk.edu



지난호(9월 6일자) 분지 기사 중 '대학원 입학인원 감소원인' 분석기사에서 언급된 석사과정 정원 미달을 45%를 19.68%로 정정합니다. 미달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41.85% 공학계열이고 대부분의 계열이 20%를 전후한 미달율을 나타냈습니다. 석사 과정 입학시험 합격률 또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망고 망고 딱 짹렸네~
어머나 세상에 포시즌을 낳았네~
망고와 구아바 눈맞은 얘기~
♫ 뭘먹을까~ 고민되네~
세가지 다 먹자!

화이트 구아바, 망고, 포시즌

델몬트 열대과일삼총사

“맑스는 아직 살아있다”

맑스주의는 ‘삶정치학’ ... ‘탈근대’ 이해의 기초



조정환
도서출판 갈무리
공동대표

정치에서 맑스주의 진단

제2강은 맑스주의의 현실적 실천적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당과 평의회에의 관계 문제를 다룬다. 부르주아 사회는 삶을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 분할되는 영역으로 나누고 정치를 경제위에 올립한다. 삶은 정치적 힘에 의해 통제되고 조직되는 경제의 형태를 취한다. 삶의 힘의 정치적 힘으로의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고자 한 맑스의 관심은 이후 맑스주의적 사유와 활동을 정치의 영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굴절되어 나타난다.

이 정치주의적 사고는 전위당을 혁명의 전략적 수단으로 사고한 레닌에서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경제의 영역에서 출현한 프롤레타리아의 독자적 조직인 평의회와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위당의 지도 아래에 복속시키고 심지어는 파괴해 왔음을 크론슈타트 봉기의 사례와 독일 노동자-병사 라테(Räte)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다.

이렇게 2강은 제2인터내셔널 이후 주류 맑스주의가 정치와 경제를 분할하고 정치를 우위에 놓는 부르주아적 이분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좌파적 실천이 결국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국가자본주의로의 개혁에 머물렀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종류의 탄생과 발전

3강은 맑스주의 전통의 비주류 속에서 주류 맑스주의적 사유와 실천의 이러한 개혁주의적 귀결에 대한 인식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다룬다.

러시아에서 노동자-농민-병사 평의회가 공산당 정치의 전통벨트로 전화하고 독일의 노동자-병사 평의회가 독일사회민주당의 바이마르공화국에 의해 분쇄되는 과정은 ‘사회주의와 전통적 맑스주의’에도 맑스적 비판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낳았고 이것은 평의회 코무니즘과 비판이론이라는 새로운 맑스주의의 조류를 낳는다.

레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전개했던 폴란드의 로자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네덜란드의 판네프크와 헤르만 코터, 독일의 오토 킬레와 코르쉬, 헝가리의 게오르그 루카치, 이탈리아의 그람시 등이 이 새로운 맑스주의의 조류의 일부로서 검토되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활동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와 발터 벤야민의 맑스주의가 이론 성취와 그 한계가 검토된다.

이 강에서 평의회는 좀더 프롤레타리아의 삶에 밀착해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신을 경제적 생산의 관리 영역에 한정하려는 조직화 경향으로 분석되며, 비판이론의 3대 연구주제

인 국가, 테크놀로지, 문화는 193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새로운 포섭양식의 대두에 대한 예민한 분석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입각해 있는 지식인적 조건으로 인해 비판적 비판주의의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된다.

1950년대에 대두한 국제상황주의도 비판이론의 연속으로서 다루어지는데, 예컨대 기 드 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탈근대적 지배양식에 대한 비판을 ‘새로운 상황의 창조’라는 구성론적 입장과 연결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로서 프랑크푸르트 비판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예술적 정치적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상황주의자들 통해 ‘세계와 자기를 포함하는 삶 그 자체의 변형’이라는 삶정치학의 테마가 예술가 세계를 중심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대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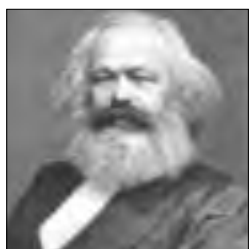
4강은 평의회 맑스주의나 비판이론들과는 달리 프랑크 공산당이라는 정통적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진 맑스주의 혁신 시도들 중의 하나로 루이 알튀세르를 다룬다.

그는 공산당을 일종의 현대적 절대정신으로 간주하는 로저 개로디스의 주체주의적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겨냥하면서 ‘이론적 실천’으로서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철학은 ‘문제들’(일반성 2을 사용하여 이데올로기 세계(일반성 1)를 실천적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일반성(일반성 3)을 생산하는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반영’ 개념에 묶여온 철학을 일반성의 ‘생산’으로 설정함으로써 창조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론적 실천은 실제적 삶과 분리될 위험을 갖고 있었는데 후기 알튀세르는 이것을 ‘철학은 이론에서의 계급투쟁’이라는 새로운 정식으로의 전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 했다. 대중운동이 철학자에게 미치는 교육효과에 대한 승인에서 시작된 이 자기비판적 전화는 1980년대에 우발성, 정세, 호기 등의 개념을 도입한 우발적 유물론의 구축시도로 발전된다.

이로써 맑스주의 내부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대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뚜렷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알튀세르는 자신의 작업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맑스



들리츠



벤야민



그람시

그것을 더욱더 확대시키는데, 이 개념을 좀 더이의 습관, 루카치의 사물화, 비판이론의 문화 및 스펙타클, 푸코의 에피스테메(그리고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프로이트와 라캉의 무의식) 등의 개념과 비교하고 현대 사회 이해에서 그 개념들이 갖는 설명력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강의의 중요한 문제의식의 하나이다.

삶정치학으로의 발전

이제 5, 6, 7강은 알튀세르에 의해 발전된 생산으로서의 철학, 이데올로기 비판, 구조에 대한 우발성의 우선성 등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전통적 맑스주의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삶정치학을 발전시킨 세 사람의 정치철학자인 푸코, 들뢰즈, 네그리를 다룬다.

이들이 맑스주의와 맺는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르다.

푸코는 한때 공산당 소속이었지만 공산당을 탈당한 후 맑스주의와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했고, 들뢰즈는 자신의 작업 속에서 맑스의 사유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독특하게 변형시키며, 네그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맑스주의자로 자임하면서도 후기구조주의, 해방신학, 조절이론, 존재론적 전통의 고전철학 등을 광범위하게 흡수하는 방향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후의 강의들에서는 전기 푸코의 에피스테메론과 체보학적 지식=권력 이론, 후기 푸코의 선택론과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념, 들뢰즈의 기계론과 기관 없는 신체론, 탈주론, 소수적 글쓰기와 소수적 정치에 대한 이론, 그리고 네그리의 계급구성론(다중)과 주권합성론(제국) 및 아우포노미아론 등이 삶정치학으로서의 맑스주의와 맺는 관계가 긴밀한 상호연관 속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맑스주의는 맑스라는 이름 혹은 이미 역사의 한 부분인 그의 글보다는 그에 의해 추구된 삶의 실제적이고 가상적인 변형이라는 그의 실천적 문제의식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훨씬 폭넓고 심원하게 사고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탈근대’라는 (지금까지의 삶의 실천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삶의 변형을 맑스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학술단신

백제시대 우물 발견

가장 이른 시기 목재사용 조립구조물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바깥 지점에서 백제시대 우물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는 성벽 중 동벽에서 벗어난 지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성백제학술조사단은 풍납동 410번지 일대 아파트 재건축 부지 현장에서 백제시대 나무로 짜서 만든 우물 시설을 확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성벽에서 15~20m 가량 떨어진 외곽 지점에서 발견된 이 우물은 깊이 240cm, 최대 너비 390cm로 측정됐다. 우물은 위에서 내려보았을 때, 정(井) 구조의 정방형이며, 네 벽면은 모두 다듬은 목재로 흠을 파서 서로 연결하면서 쌓아 올린 구조이다. 우물 바닥에도 두께 8cm 가량 되는 각재를 설치했다. 조사단은 이 우물은 한성백제시대 발굴 유적 중 최초로 확인된 우물지로서 목재를 사용해 조립한 구조물중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신편 고려사절요 발간

한문 원전사료 첨부 · 번역오류 수정

고려사와 함께 고려사 연구 양대 필독서인 ‘고려사절요’ 완역본이 조판 발간 38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됐다. 이는 96년 12월 민족문화추진회가 국책사업의 하나로 원문없이 한글로 완역했던 ‘국역 고려사절요’를 시대에 맞게 재편집한 ‘신편 고려사절요’를 상·중·하 3권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번 신편은 번역오류로 그에 해당하는 한문 원전 사료를 첨부해 고찰자를 익히는 동시에 번역상 오류를 바로잡도록 했다. ‘고려사절요’는 후일 수양대권(세조)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어린 단종을 보호하다 참살된 김종서가 편찬을 지휘한 사서로 연대순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배열한 편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사’의 세가만을 다룬 책이 ‘고려사절요’라고 할 수 있으나 같은 사건을 전하면 서로 표현 등이 서로 달라 고려사 연구를 위해서는 속독이 필요한 기초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주 도서관 신착도서목록

도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알기 쉬운) 식물의 표지구조	김보연	한국식물정보원
아름다운 초원, 새끼들	최삼규	연암사
(생명의식물) 플로리아 이야기	이은주	한림미디어
왜 달인의 아래는 자살할 수밖에 없을까?	Dagognet, Francois	창원지사
(한글 SPSSWIN에 의한)다변량 데이터의 통계분석	노형진	석경
서양음악사 : 이론과 실제	정명숙	신광출판사
(남기주) 송제순의 정원 이야기	송제순	열린출판사
(테마파크) 롤러코스터	김정규	북위북두
식물형태학 : 새롭고 알기 쉬운 식물의 구조와 기능	이규배	라이프사이언스
삼성체질 회의하라	김영환	창원정신
(시간이 훑기지 않고 성공하는) 정리형 인간	Kendall-Tackett, Kathleen	르나
반역의 맥 : 응징과 사형통제	Spence, Jonathan D	이산
(패러독스 사회학) 백미로의 초대	공본효이	모멘트
오케루지 : 매일 천 배를 하는 경계의 절 이야기	한경애	반디미디어
나의 라디오 아틀	LaSalle, Barbara	환인
언어와 비극	별곡명인	도서출판 b
(세우지 않고 이기는 힘) 따뜻한 카리스마	이홍선	렐렐하우스출판
조선의 여성들 :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박무영	돌베개
관공과 관녀	박문규	김영사
(이외수 소망상자) 바보바보	이외수	해냄
자바 유창하게 말하기	Bloch, Joshua	대원미디어
맑스를 위하여	Althusser, Louis	벽의
서준식의 생각	서준식	아간비행
언어본능 : 마음은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	Finker, Steven	소소

형법 특강

1학기 민법특강에 이어 형법특강을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특강은 한국법학교육원 비디오 강의로 현직교수 진도별 모의고사 시험과 문제풀이 강의만 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국인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특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9월 15일 ~ 10월 12일 (총 18회, 일요일 제외)
2. 시 간 : 오후 6 : 30 ~ 7 : 40 (시험)
오후 7 : 50 ~ 10 : 00 (해설강의)
3. 장 소 : 추후공지
4. 강 사 : 이민규 박사 (현 한국법학교육원 형법강사)
5. 교 재 : 현직교수 출제 진도별 모의고사(40문제)
6. 신청장소 : 계산고시학사 2층 조교실(문의전화 2260-8685)
7. 수강료 : 계산고시학사 사법시험반 입실자 1만원,
그 외 수강생 2만원(100% 출석시 1만원 환불)
8. 신청기간 : 9월 10일 ~ 9월 15일 17시까지
9. 기 타 : 본 강의내용 선착순 45명만 수강가능하며, 매시할마다 OMR 카드로 답안을 작성하여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

박준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강연

국제해양분쟁해결 절차와 ITLOS

법과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국제법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가간 분쟁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문제와 그 해결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청강연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강연주제 : 국제해양분쟁해결 절차와 ITLOS
2. 초청연사 : 박준호(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3. 일 시 : 9월 15일(수) 19:00 - 21:00
4. 장 소 : 90주년 기념문화관 제1세미나실

법과대학

한국문학연구소 제9회 석학초청세미나

20세기 동아시아 국학과 21세기 동아시아학의 방향

본 연구소의 석학초청세미나는 지난 2000년 한국문학연구를 대표하는 석학을 모셔 학문의 방법과 자세, 해석과 논리를 경정하는 귀중한 기회로 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한국문학연구소에서는 그 동안 8회에 걸쳐 조동일(서울대 국문과), 김우창(고려대 국문과), 후루하시 노부오시(古橋信孝), 김려로 선생님 등을 모시고 석학초청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실사구시의 한국학’ 등을 통해 국학과 동아시아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신 일행택 선생님을 초빙하기로 하였습니다. 20세기 동아시아 국학과 21세기 동아시아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문학의 전통을 회고하고 동아시아학의 주제적 수립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연자 : 일행택(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장, 동아시아 유교문화연구교육연구단장)
주 제 : 20세기 동아시아 국학과 21세기 동아시아학의 방향
시 간 : 2004년 9월 16일(목) 오후 4시~6시
장 소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AV실

한국문학연구소

건학100주년기념

교사(校史) 자료 수집

건학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06년 명진학교 개교당시부터 현재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校史)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병원, 해화전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동국인의 긍지를 고취시켜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
2. 수집 기간 : 2006년 4월 까지
3. 수집 장소 : 동국대학교 박물관
4. 교사자료 수집내용
 - 1) 건학에 기여한 선각자 및 사물에 관한 자료(1906년 전후 자료)
가. 선각자 : 이보만, 김월해, 김우윤, 박보봉, 김석용, 홍일출, 김보은, 김포은, 김현암(9인)
나. 사 찰 : ▶ 대법산 : 원흥사(서술)
▶ 중법산 : 봉은사(경주) 봉선사(영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공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해운),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구), 월정사(강릉), 유점사(고성), 석왕사(안변), 귀주사(함흥), 보현사(영변), 신광사(해주)
 - 2) 문헌자료
가. 서적 및 정기간행물 : 각 기관에서 발행한 서적 및 간행물
나. 문서, 문건 : 공문서, 업무일지, 회의록, 대외부, 학생활동문건 등
다. 각종 증서류 : 학위증, 학생증, 성취증명서, 교직원신분증 등
라. 기념일 및 홍보물 :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팸플릿, 포스트, 페너트 등
 - 3) 기념품 : 교표, 교기, 우승컵,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 4) 복식자료 : 교복, 교모, 체육복, 교관복, 학군단복, 심속복, 행사티셔츠 등
 - 5) 사진자료 :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 6)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 회초, 서예, 유품 등
 - 7) 집기 및 비품 자료 : 각종 인장, 현판 등

* 문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 박물관 (02)2260-3462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보리소

멈춰, 제발 멈춰

부처님 당시 열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청년 하나가 칼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찔러 죽인 뒤에 그 손가락을 잘라 내어 목걸이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의 손에 희생당한 이가 무려 999명.

어느 날 골목 어귀에서 발우를 든 늙스레한 수행자 한 사람이 맨발로 타박타박 걸어오고 있다. 청년은 수행자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칼을 치켜들었다. 그런데 수행자는 살인마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한 듯한 태도로 태연스레 지나갔다. 당황한 청년이 외쳤다.

“이봐, 거기서!” 그제야 수행자는 발걸음을 멈춘 뒤에 코끼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듯 몸을 돌려 청년을 바라보았다.

“나는 멈춰서 있다. 그대가 멈추어야 한다. 나는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려는 그 살의를 멈추었다. 그런데 그대는 왜 멈추지 않는가?” 아주 유명한 앙굴리마라 이야기이다.

며칠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현대의 살인범이 붙잡혔다. 이제부터 시작인데...라고 그는 말했다고 한다.

신문을 보면서 그를 치유할 명약이 어디 없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어떤 이론, 어떤 교리가 그를 설득할 것인가. 북오세티아의 인질 참사극은 천 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를 내었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지구 어디쯤에선가 오늘도 귀한 목숨들이 비명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목숨에 대한 테러를 멈추게 할 극단적인 처방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없다. 다만 ‘멈춰, 제발 멈춰’라는 구호밖에. 살자고 벌이는 짓인데 목숨을 불모로 하여 끝장을 보고 마는 이 지구의 정신병자들에게는 그 구호밖에 없는 것 같다.

이 미령
역경원 연구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실 등으로 내수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이라크전쟁 그리고 사스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편 대통령 탄핵정국, 실행정수도 이전문제, 과거 사 청산문제 등으로 국론이 양분되어 갈등을 키웠고 드디어 국가보안법철폐문제까지 겹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 정권에 몸담았던 보수성향의 원로들이 힘을 모아 참여정부를 향해 힘차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참으로 격정스러운 대목이다.

비관적 자세 경제불황 악화시켜

우리나라 경제의 위축은 대외적 여건의 악화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현재 지속되고 있는 내수 부진이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신감 부족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면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신감 부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것은 국론의 분열로 인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확대된 불확실성속에서 비관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국론분열 요인들로 인해 경제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정치권은 이러한 경제적 상황마저 내뱉



논단
송 일 호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서로간의 신뢰회복이
경제활성화 위한 필수조건

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체감경기가 IMF 위기 때보다 더욱 나쁘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돌리고 있고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증산층이 무너지는 소리도 들린다.

기업은 신규채용을 꺼려해 고학력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있으며 핵심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력은 전부 시간제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하청업체 종사자들로 메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정치권 안정으로 불황타개해야

이러한 우리 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안정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은 불안정한 정치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경제를 흔들며 경제 주체가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

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불황 타개를 위해 정치권은 분열된 국론의 틈새에 신뢰라는 처방책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이 신뢰야말로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라는 자본은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실존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사 청산문제나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나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흑백논리에 의해 진행된다면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서로간 관용과 신뢰 중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정략적인 접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과거사 청산문제나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넓은 관용으로 이해하고 가해자는 깊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낮추고 한발씩 물러서서 국가와 민족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서로간의 신뢰가 조금씩 형성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쪼개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를 살리며 궁극적으로 성숙된 국가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시의적절한 기사, 편집이 뒷받침 못해

매주 발행되는 ‘동대신문’을 보면서 느끼는건 ‘고마움’이다. 학내의 크고 작은 소식,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뉴스는 독자에게 우리 주변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심층취재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미 완공을 해놓고도 개원을 못하고 있는 일산 불교종합병원의 개원준비 현황을 짚어보는 기사는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또한 신인 기획인사처장 인터뷰를 통해 학교행정의 현안들을 들춰내고 그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았다.

반면 기획특집인 ‘대학원의 위기-해법을 찾자’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사회 전반적인 입학정원 미달 사태를 우리 대학의 문제점과 함께 살펴본 것은 현재의 대학원 위기가 우리 대학의 현상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원 감축, 정원교수 부재, 연구공간 부족 등을 우리대학의 개선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는 여타의 움직임, 세계 각국의 사례나 국내 선도대학의 자구책등도 소개했으면 타산지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다.

또 하나는 편집에 대한 견해이다. 짧은 시간에 제작해야 하는 한계성도 있지만, 기사 제목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1면 불교병원관련 기사 제목중 ‘다음해 3월 개원’보다는 ‘내년 3월 개원’이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가 아닐까? 5면의 ‘칸트’ 서거 200주년 기념 기사의 경우는 제목에서 칸트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8면 문화면 톱의 ‘교직원과 학생의 라디오 대담’이라는 제목 역시 얼핏보면 교직원과 학생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담하는 착각을 준다. 차라리 ‘교직원과 학생마니아 대담’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 독자들의 요구를 학생기자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작업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다양한 기획, 유익한 정보, 깔끔한 편집 등을 원하고 있으니 그 바램을 저버리지 말고 계속 분발해주길 바란다.

신관호(홍보실장)

소나기

국가보안법 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에 찬성입니다.

△국가안보가 위협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폐지하는 것이 대세.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체입법을 통한 국가안위도 가능하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이 법이 진정한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입니다.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무조건 폐지 찬성! 구시대적 유물은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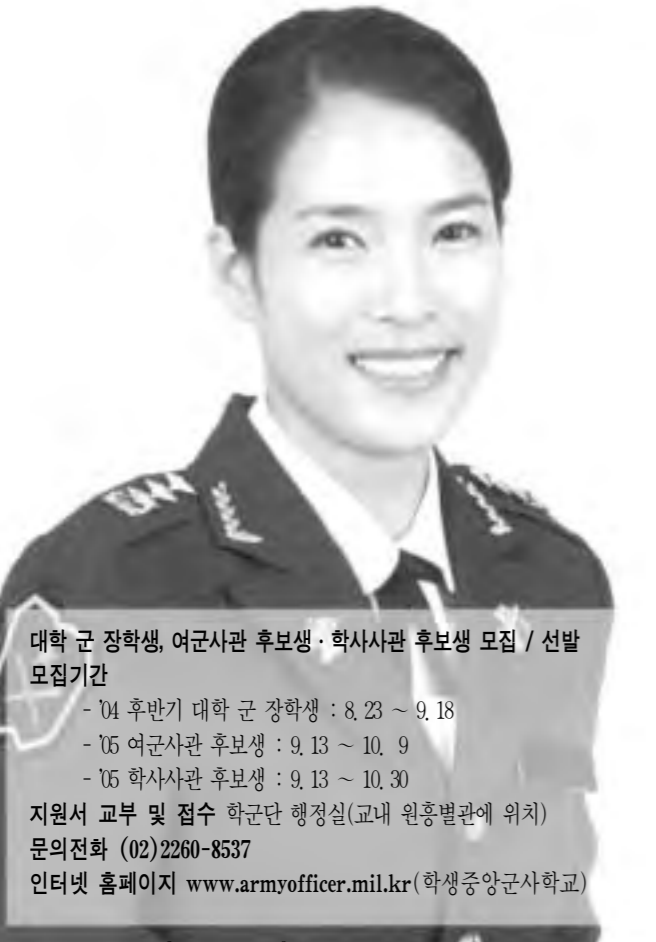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반인권적이고 억압적인 국가보안법.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는지 알고 있을것입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대한민국 정예 육군장교로!



대학 군 장학생, 여군사관 후보생 ·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 선발 모집기간

- '04 하반기 대학 군 장학생 : 8.23 ~ 9.18

- '05 여군사관 후보생 : 9.13 ~ 10.9

- '05 학사사관 후보생 : 9.13 ~ 10.30

지원서 교부 및 접수 학군단 행정실(교내 원홍별관에 위치)

문의전화 (02) 2260-8537

인터넷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 (학생증장군사학교)

제112(동국대) 학생군사교육단

2004년 하반기 대학 군장학생 모집

선발인원	1학년 : 000명
지원자격	· 입관예정 연월일 기준 만 20세이상 27세이하인 자 - 1학년(4년제) : '88. 7. 31 ~ '80. 8. 2 출생자 · 4년제 대학 중 1학년 재학생 · 학기별 성적이 평점 2.0이상, 신장학점 80%이상 취득자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지원서 교부/접수	· 기간 : 8. 23(월) ~ 9. 18(토) · 장소 : 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 서약서 1부 - 신원진술서(A양식) 3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수능성적 증명서 1부(입학당시 적용한 수능) - 대학 확인용 성적 증명서 1부 - 호적등본 3부, 주민등록등본 4부 - 칼라사진(4.5cm 탈모상반신) 4매 - 복무연장 지원서 - 재정보증인 관계서류 각 1부 (직계존속 재정보증인은 불가)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산점 증명서류 각 1부
선발	· 수능성적 · 대학성적 ·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64~195cm, 체중 : 46~120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난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D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률도 차이가 4.0D미만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 '04. 10. 23, 최종 합격자 : '04. 12. 18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2005년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인원	000명
지원자격	· 입관예정 연월일 기준 만 20세이상 27세이하인 자 - 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예비역은 30세 이하 · 4년제 대학 졸업자('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지원서 교부/접수	· 기간 : 9. 13(월) ~ 10. 30(토) · 장소 : 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 신원진술서(A양식) 3부 - 수능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포함) - 천연색 사진(4.5cm 탈모상반신) 3매 - 병역 중 또는 병적증명서(타군출신은 해당 군 참모총장 추천서) - 국가유공 / 장기군속 군인자녀, 특기 / 국위선양자 확인서
선발	· 수능성적 · 대학성적 ·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64~195cm, 체중 : 46~120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난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D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률도 차이가 4.0D미만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 '04. 12. 24, 최종 합격자 : '05. 3. 5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2005년 여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인원	000명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03. 7. 1) 만 20세이상 27세 이하인 미혼 여성 ('77. 8. 1 ~ '85. 7. 31)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5.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지원서 교부/접수	· 기간 : 9. 13(월) ~ 10. 9(토) · 장소 : 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입학당시 수능성적 증명서 1부 -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호적 /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3부
선발	· 수능성적 · 대학성적 ·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55~183cm, 체중 : 45~87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난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D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률도 차이가 4.0D이하
합격자 발표	인터넷 게재 및 개별통지 예정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달하나 천강에

학생들과의 소중한 약속



장영우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수련... 여름방학의 체험은 저마다 달랐을 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난 학기보다 훨씬 의젓하고 단련된 모습으로 성장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강의가 시작되는 첫주는 유난히 바쁘고 어수선하다. 방학의 달콤한 휴식에 취해 있던 육체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아, 강의 를 마치고 나면 약간의 몸살을 앓는다. 한 안거의 '묵언'에 익숙해져서인지 허가 잘 안 들고 목이 쉽게 쉬며 다리도 빠르다. 매 학기 반복되는 이런 증세는 그러나 두어 주일이 지나면 씻은 듯이 사라진다. 본격 적이고 열띤 강의와 토론이 가능해지는 것도 그 무렵부터이다. 학기초가 유달리 힘드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강의 첫 시간에 마주치는 학생들의 눈초 리는 늘 나를 긴장시킨다. 기대와 호기심 을 잔뜩 머금은 그들의 맑고 진지한 눈동 자를 대하는 순간 나는 자못한 갈증을 느 낫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학생들과 단 한

발작도 양보할 수 없는 지적 게임을 펼쳐 야하기 때문이다. 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이 강좌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몇 가지 약속을 받아낸다. 리포트 제출과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출석 에 관한 몇 가지 주의 등이 바로 그러한 것 이다. 학생과의 약속이 잘 지켜진 강의는 학기 내내 즐겁다. 수업에 열중하다 시간을 넘 기기도 하고 가끔은 학생들의 박수를 받기 도 한다. 하지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서로가 짜증스럽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원인은 서 로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데 있다. 또한 학생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왔다 하더라도 내가 철저히 준비를 해 있다면 그 시간은 무난히 넘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학기중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수업 중 어떤 상황이 닥칠지 전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생과 학생 사이에는 무엇보다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 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에게 선생의 한 마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과서적 지식의 전달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삶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개강 무렵 한 일간신문에서 흥미로운 기 사를 읽었다. 경제학을 전공한 직장인이 대학시절 수업을 받았던 은사에게 공개적 인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내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라서 그 제자의 질문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학창 시절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에게서 항의성 질문을 받은 금융계 수장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머리칼이 곤두선다. 올해 나는 연구년을 맞았다. 모처럼만 에 주어진 재충전의 기간 동안 나는 학생 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어기지 않기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 나갈것을 스스로 다짐 한다.

사설

건전한 토론문화를 바란다

디지털 사회라 불리는 요즘, 네티즌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온라인 토론공간은 우리사회 여론을 이끄는 거대한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나의 주장' 역시 온라인 상으로 서로의 주장에 대해 지지하거나 논박하는 공간이다. 이와 함께 여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마음껏 해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역할 그 이면에는 일방적인 매도성 또는 인신공 격성 글이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요즘 들어 국가보안법 문제와 학생회비 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와 관련한 극단적인 표현과 이분법적 사 고방식으로 얼룩진 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학생회비에 대한 의견을 예 로 들면, 학생회를 바로 세우자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 라 학생회 자체를 부정하는 근시안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때로는 쟁점의 장이 되기도 한다. 국보법 폐기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결 과 20대의 절반 이상이 찬성입장인데도 '나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학 교 대학생들은 국보법 존치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 부 '나의 주장' 페인들이 주도하는 여론이 또다른 논쟁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토론을 통한 정책결정은 참여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또한 네티즌의 토론문화 성숙도는 현 디지털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능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성원들 역시 스스로 높은 수준의 토론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건전한 온라인 토론공간인 '나의 주장'을 본래 뜻대로 활성화하 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자세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선거를 위한 전략, 마치 자신의 주장이 정당인양 다른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 열린 자세로 순수하 고 건설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하자.

메아리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의 사전적 의 미는 대중(인기)영합주의 또는 인민주 의다. 일반적으로 지나친 민주화에 따 른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며 대중의 인 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회주의를 내 포한다. 기원은 러시아의 급진적 지식 인들을 중심으로 1870년부터 전개됐 던 'narod niki' 운동을 영어로 옮긴 것 이다. 포퓰리즘의 어원은 복잡하다. 루소가 말한 직접 민주주의나 로버트 달(Robert Dahl)이 정의한 '시민 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 정 부가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체제'로 불리기도 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포퓰리즘을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라고 보는 학 자도 있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토 론과 심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 향인 참여민주주의와 함께, 포퓰리즘 은 지도자와 대중이 아무런 매개 없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의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가 대의제적 성격을 버 리기 어려운 한 포퓰리즘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이 점에서 '민주주의 의 그림자'라고도 불린다. ▲포퓰리즘하면 흔히 아르헨티나

페론정권을 떠올린다. 후안페론 전 대 통령의 대중 요구에 입각한 분배위주, 친노동정책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몰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례로 페 론정권은 자주 인용된다. 우리나라에 서 포퓰리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거대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 다. 김대중 정부가 인기위주 정책만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초기 에도 조중동은 노 정권의 포퓰리즘 이 극에 달할 정도라고 경계한 바 있다. ▲조만간 연구처에서 인 문사회계열 교수에게 컴퓨터 터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구인프라 사업의 하나다. 하지만 과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인지 의문이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이공계나 정산대와 연구 과제나 특성 이 다른 만큼 컴퓨터보다 더욱 시급한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연구처는 교수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하나로 이번 계획을 세웠겠지만 과연 이번 계획이 합리적인 지원인지, 아니 면 진정한 필요와 요구를 도의시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상리과원

미담 서정주

꽃밭은 그항기만으로 불진대 한강수나 낙동강상류와도같은 융융(隆隆)한 흐름 이다. 그러나 그 날날의 얼골로불진대 우리 조카딸년들이나 그 조카딸년들의 웃음 판과도같은 광광히 질거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트리는 몸동아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네온 배나무의 어떤것들은 머리카락이뿐만이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꿈치에까지도 이쁜 꽃송이들을 달았다. 땀새, 참새, 때까치, 피꼬 리, 피꼬리새끼들이 조석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울조리고, 수십만마리의 꿀벌 들이 원종일 부치고 소구치고 마지못 올리는 소리를하고, 그래도 모자라는늬은 더 러 그속에묻혀 자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일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했으면 좋겠는가. 무처서 누어있는 못물과같 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취고 누어서, 때로 가냘푸게도 떨어져내리는 저 어린것들 의 꽃잎사귀들을 우리 몸우에 받아라도 볼것인가. 아니면 머언 산들과 나란히 마 조 서서, 이것들의 야침의 유두분면(油頭粉面)과, 한낮의 춤과, 황혼의 어둠속에 이것들이 자자들어 돌아오는 아스라한 침잠이나 지킬것인가. 하여간 이 한나도 서러울것이 없는것들앞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하 나도 없는곳에서, 우리는 서빨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서름같은 걸 가르쳐주말일 이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치의 어느것, 비비새의 어느것, 벌 나비의 어느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송이리의 어느것에 대체우리가 행용 나죽히 서로 주고받 는 슬픔이란 것이 것들이어 있던말인가. 이것들의 조밭에의 완전귀소가 끝난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것들과 산과 냇 물을 까마득히 덮을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제일 가까운곳 의 별을 가르쳐 보일일이요, 제일 오래인 종소리를 들릴일이다.

과수원지기 촌로(村老)의 어눌한 목소리로 송엄한 자연의 교향악을 빚어낸 이 작품은 자연을 담은 시골의 푸근한 정감과 자연이 배운 축복을 잘 드러내 보인 명편 시문학의 하나이다. 어디에도 슬픔이 깃들어 있지 않은 초봄, 과수원의 흐드러진 꽃과 새와 벌과 나비들. 먼산 너머로 뿔뿔이 뿔어가는 황혼녘에서부터 어둠 내릴 때까지 정관(靜觀)하며, 화자는 자연이 배운 축복으로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게 만든다. 유임하 한국문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동국만평

이호선 icezz@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곽주안 부주관 구본철 편집국장 류연성 편집장 최성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8-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영어 Pass제 9월 TOEIC 시험

* 졸업요건 영어 Pass제 TOEIC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학칙 제 54조 2 및 시행세칙)

- 1. 시 험 : TOEIC
2. 일 시 : 2004년 9월 19일(일요일) 15:00 ~ 17:30 (14:50 입실완료)
3. 장 소 : 중강당
4. 응 시 료 : 무 료
5. 대 상 : 01학번이며 2005년 2월 졸업 예정자
6. 신청기간 : 9월 1일(수요일) ~ 9월 16일(목요일) (증명 사진 2장 제출)
7. 접 수 처 : 언어 연구 교육원 사무실 (회화관 1층, 2260-3471)

* 금번 TOEIC 시험은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시험 으로 대상자 (미 Pass자)는 모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연구 교육원

동원 학술상 논문 모집

- 1. 응모대상 :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석사는 5학기 이내, 박사는 10학 기 이내 당해학기 연구 등록을 필한 자)
2. 상금 및 시상내역 : 석·박사과정 및 4개월(인문, 사회, 자연, 공학)별로 선정 된 우수논문에 대해 총 2천만원 시상. 계절별 최우수상(2백만원), 우수상(1백만원), 장려상(50만원)
3. 시행 일정
가. 논문 접수 기간 : 2004년 9월 6일(월) ~ 2004년 10월 8일(금)
나. 논문 심사기간 : 2004년 10월 11일 ~ 10월 15일(1차) 2004년 10월 18일 ~ 10월 29일(2차)
(2차 심사는 가을 학술제 기간 중 실시예정)
다. 심사결과 발표 : 2004년 11월 초(신문, 공문 등)
라. 학술상 논집 발간 : 2005년 1월

대학원 연구/동원논집 원고 접수

- 1. 목적 : 연구/동원논집은 대학원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발표의 정을 마련함으로 써 동국문학의 발전을 기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발간방향 : 대학원 교학과 학생회에서 각각 접수받아 심사하여 책자로 제 작하였던 대학원연구논집과 동원논집의 접수 및 심사를 대학교 교학과 일원화하여 진행
3. 원고제출대상 :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생
4. 시행일정
가. 원고 접수 : 2004년 9월 6일(월) ~ 2004년 10월 8일(금)
나. 원고 심사 : 2004년 10월
다. 심사결과 발표 : 2004년 11월 초
라. 원고 교정 및 편집 : 2004년 11월 ~ 2004년 12월
마. 연구논집 발간 : 2005년 1월

대학원 총학생회

http://www.dgugs.com ☎2260-8761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실시

재학생의 기업업무 적성 및 인성 특성 파악에 도움을 주고 인·적성검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리쿠르트 적성검사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검사 종류 : 직무적성검사
2. 검사 일시 및 장소
• 1차 : 9월 20일(월) 오후 3시 학림관(J201)
• 2차 : 9월 21일(화) 오후 3시 학림관(J201)
• 3차 : 9월 21일(화) 오후 5시 30분 학림관(J201)
3. 검사 소요시간 : 100분
4. 대상 : 1, 2, 3, 4학년 전교생
5. 비용
• 총 비용 7,000원, 학생 본인부담 2,000원
• 나머지는 학생상담센터와 졸업위가 지원
6. 접수 기간 : 9월 6일(월) ~ 9월 17일(금)
7. 접수 방법 : 학생상담센터나 졸업준위로 단체 또는 개인 접수
8. 검사결과 수령 : 검사 해설날(10월 5일 3시) 수령 및 학생상담센터에서 10월 4일부터 수령
9. 검사결과 해석 일시 및 장소 : 10월 5일 3시 학림관(J201)
*문의(구내전화) : 학생상담센터(3931), 졸업준비위원회(3613)

학생상담센터·졸업준비위원회

취미와 취업을 위한 단기강좌

공강시간을 알뜰히 보내자!

1. 기간 및 강좌 : 9월 20일 ~ 10월 28일 (주1회 2시간씩 총 4회)

Table with 5 columns: 강좌, 강사, 내용, 시간, 비고. Courses include Night Dance, Image Making, and Public Speaking.

- 2. 접 수 : 9월 13일 ~ 17일, 여학생실(계산관 1층, ☎ 2260-3058)
3.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 선착순 마감
4. 수강료 : 10,000원(100% 출석시 환불)



◆ 취지 : 캠퍼스에서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정서함양과 교양습득에 도움이 되는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여 학생 실

멀고도 가까운 '소나타의 향연' 속으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잘 부를까
하고 가는 게 아니다.

클래식오버는 클래식과 다른 장르

소프라노 조수미가 팝송이나 영화음악, 뮤지컬을 노래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는데, 그런 자신의 공연에 대해서 "클래식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제가 부르는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수미 말고도 크로스오버 음악을 클래식 음악에 접근하는 전단계의 음악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을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조수미의 공연을 보러 갈 때, 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벨칸토 발성과 화려한 코라리투라 기교, 무대 가득 메우는 그 놀라운 스타쉽을 기대하는 것이지 팝송이나 영화

음악을 듣는 것과는 다르다. 크로스오버는 장르를 넘나드는 것을 의미한다지만 실제로는 넘나들기보다 '어떤 한편'으로의 통합이고, 또 다른 장르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때의 '어떤 한편'이란 대중음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마리아라는 팝페라 가수가 'Moonlight'라는 가사를 붙여서 노래했다면 그 음악은 'Moonlight'라는 대중음악일 뿐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를 듣고 그 곡의 오리지널이 무엇인가를 추적해서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찾아서 들어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시대를 '원본의 상실과 복제의 시대'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오리지널은 간 곳이 없고 퓨전(Fusion)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변종을 낳고 있는 시대이다.

크로스오버를 다른 말로 하면 퓨전이 되는데, 퓨전이라는 게 뭔가? 이런 저런 문화예술의 기호와 특징을 섞어 버무리는 것이다. 퓨전은 장르의 결합, 양식의 융합, 장르간 경계의 해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퓨전이라는 용어와 의식은 인터넷과 글로벌리즘으로 대표되는 '넌 보더(Non Border)'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런 세대에 대해 크로스오버 음악은 아주 당연한 기호일뿐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 된 퓨전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라고 여겨진다.

어려워도 쉽게 배울 수 있어

따라서, 혼합과 해체를 즐기는 이들 퓨전 세대에 클래식도 그들의 관심사(기호)로 만들기에 시대가 너무 벅차다)로 받아들

이도록 만드는 길은 오히려 정공법이 유일하다고 여겨진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려면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클래식 음악은 규범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이 규정하는 규범을 모르고서는 그것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가 없다.

공부해야 행복해지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도 많다. 그러나 공부하려면 공부부터 뻘뻘이 제법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 제인 스튜어트 스미스와 베티 칼슨이 지은 '로네타무 아래(The Gift of Music)'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세계 음악사에 불후의 명곡들을 남기고 간 작곡가들의 생애와 주요 작품들을 요약·소개한 책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이 '이해하는 마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일을 장려하는 동시에, 마음의 귀를 열고 상상력을 펼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박근수 음악평론가

우리학교 클래식 마니아를 찾아

"알수록 더 빠져드는 클래식 매력"

우리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OPUS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주(전자2) 군은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음악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시작한 것이 인연이 돼 지금은 평소에도 클래식 음악만 듣는 마니아다.

그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음악에서 작곡가의 혼을 느낄 수 있고, 같은 곡이어도 연주자나 지휘자의 특성에 따라 곡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것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등이다.

이 군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타이탄'이다.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클래식이라 재밌고 웅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클래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베토벤이나 쇼팽 등 많이 알려진 음악가의 곡을 추천한다. 또한 클래식이 어렵다면 요즘 나오는 뉴에이지나 팝페라 등으로 먼저 친근해지는 것도 좋다.

그는 또한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다.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음악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된다.

"큰 연주회는 비싸서 무료 연주회를 자주 찾아가요" 이 군은 굳이 비싼 공연을 보려하기보다 시·구청의 오케스트라나 타대학 음악대학·동아리 연주회 등을 주로 찾는다.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공연을 저렴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타대학 연주회를 많이 다니면서 그는 상대적으로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에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려대도 음악대학은 없지만 학교의 풍부한 지원으로 전용 공연홀과 오케스트라 시설 등이 잘 마련돼 학생들이 접하기에 쉽다"며 아쉬워한다.

클래식은 조금만 알면 누구나 감명 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클래식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작은 음악회 등이 자주 마련되길 바라는 이동주 군의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이들을 알면 클래식이 보인다!

클래식기타 동아리 '현어울'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동아리로 현재 2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3월 초에 신입생환영연주회를 열고 2학기 초에 정기연주회를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또한 홍보공연으로 팔정도 등 곳곳에서 연주를 하며 동연제 및 외부 행사에도 초청받아 연주한다.

클래식기타는 전자기타, 통기타와 달리 클래식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며 독주가 가능해 매력적이다. 또한 클래식과 기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를 배울 수 있는 강좌를 학기와 방학 내내 동아리실에서 열고 있다.

동국대 오케스트라 'OPUS'

올해로 결성 3년째인 OPUS는 현재 약 30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이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 학림관 강의실을 빌려 꾸준한 연습을 하는 등 정식 동아리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음악대학이 없는 본교 유일의 오케스트라로서 불교관련 외부 행사에 초청받기도 한다.

학내에서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올해는 오는 11월 13일 중강당에서 열린다. 또한 중앙도서관과 상록원 앞, 중강당 등에서 홍보공연을 펼쳐 학생들이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음악을 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민희 기자
culture@dongguk.edu

매체비평

도서 편

역사전쟁

중국 '동북공정'의 정치적 속내 잘 풀어내



역사 연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회적 측면으로 과거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그런 순수하고 학문적 차원의 역사 인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최근 그들의 현실과 미래의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소위 '동북공정'이다. 그러면 이의 실체는 무엇인가?

"요동과 만주 대륙을 다스렸던 동아시아의 강대국 고구려. 이러한 고구려사에 대해 근래 중국은 평양 천도 이전의 고구려사는 중국사로,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는 한국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2002년부터 일방적으로 '고구려는 중국 내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었다'라고 강변한다. 곧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를 학문적 차원에서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그러나 그 목표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함이며, 동시에 한족(漢族) 중심의 제국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인 것이다. 곧 중국 통치 영역 내에 포함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여러 소수 민족의 완전한 지배를 위한 것이다"라고 '역사전쟁'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다.

정녕 중국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러 주변 민족의 과거 사까지 닦치는 대로 삼켜버리는 흉물스러운 아귀가 될 것인가? 이는 우리 한국사의 왜곡일 뿐만 아니라 자가당착적인 그들 자신의 역사 왜곡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총성없는 역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근대적 역사학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되기 시작한 100여년 전, 일본의 현실과 미래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이용사학자들에 의해 한국사가 심각하게 왜곡 훼손된 바 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일 역사전쟁을 치렀다. 당시 일본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통해 일본과 조선인의 조상이 같다고 우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중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중국인들이 고구려사를 통해 우리와 같은 민족이란단. 아마도 '삼국사기' 편찬자 김부식과 '삼국유사' 편찬자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또 다른 세상에서 웃고 계시겠다.

'역사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역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느끼게 한다.

김병곤
박물관 연구원, 문과대 사학과 강사

문화단신

서울필름페스티벌

2004 서울 넷&필름 페스티벌(세네프) 중 오프라인 영화제인 '서울 필름페스티벌'은 15일부터 22일까지 △허리우드 극장(1,2,3관) △서울아트시네마 △일민미술관(삼성미디어라운지)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디지털영화영상을 위한 국제영화제로 26개국 265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의 '털스 루퍼의 가방 제2부'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다룬 것이다. 폐막작은 세네프대상인 Senef Grand Prix를 수상한 작품이 22일 오후 7시 허리우드극장 2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당신이 청춘으로
이 땅을 지킬 때,
농협은 생명산업과 금융산업으로
이 땅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농산물시장과 금융시장이 열려있는 지금,
누군가는 우리의 생명산업과 금융산업을 지켜야 합니다.
농협은 순수 우리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품질향상으로
세계 경쟁력을 높여 이 땅의 생명산업을 보호하고,
100% 순수 국내자본의 은행, 보험, 카드, 디지털 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로 이 땅의 금융산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 더 든든한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농협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Human Bank, Human Life

